

#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 Acculturative Stresses and Adjustment element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임춘희\*\*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가족학 전공

Choonhee Lim

Child & Family Studies Maj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tresses and adjustment element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qualitative method based on interviews with sixteen Chinese students as a focus group by the help of two interpret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resses of Chinese students were from 'cultural difference', 'language', and 'financial',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stress', and 'university culture in Korea'. Those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several sub categories. Second, ten helpful elements Chinese students could adapt themselves to Korean university life were such as 'Help of Korean professor and friends', 'Chinese friends' help', 'English-oriented lecture', 'Cultural affinity to Korea', 'Fluency in Korean language', 'Integration to Korean culture', 'Pride in Chinese culture', 'Individual effort', 'Satisfaction with educational environment', 'Perception of self-growth'.

Key Words :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stress, adjustment, university culture in Korea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를 시작으로 1994년 '한·중 문화교류 협정'이 체결된 이후 급속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2007년에 양국의 인적교류는 482만 명을 넘었으며 수교 16주년이 된 2008년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무역과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의 경우도 이미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2007년도 중국내 외국인 유학생 19만 5천 여 명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32.9%를 차지하면서 중국 내 외국인유학생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8.7.22). 한편 2008년 6월 기준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및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이 4

만7620명이며 이 중 중국유학생이 3만6323명으로 전체의 76.3%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단순한 경제적인 효과 그 이상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통해 한중 문화를 상호교류하고 한국문화를 전 달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문화적,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유학생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들어온 사람들로 비교적 단기간 머물고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민자들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체류자(sojourner)에 속하며 따라서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적응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자아중심성이 강한 청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언어와 인간 관계, 타문화에 대한 적응에서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Philips와 Norsworthy(1997)에 의하면 유학생들은 향수병,

\* 본 연구는 2007년도 군산대학교 신입교수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Choonhee Lim  
Tel: 063) 469-4620, Fax: 063) 466-2085  
E-mail: chlim@kunsan.ac.kr

음식문제, 언어문제, 의료서비스, 경제적 문제,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계획, 우정을 발전시키는 일, 일상사, 이성과의 사회적인 관계, 집을 구하는 일,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일,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관습을 지속하는 일, 사회의 폭력, 인종차별, 새로운 관습과 교육체제에 적응하는 일 등에 대해 걱정과 요구를 갖고 있다(엄혜경, 2003 재인용).

유학생을 포함하여 타문화에 온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의 단계로 Oberg는 밀월, 위기, 회복, 적응의 4단계로 언급하였는데(Ward, 2006), 체류자들은 처음에 새로운 문화를 만나면 행복감과 도취감, 황홀감을 느끼는 밀월(honeymoon) 단계를 경험하다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부적합감과 좌절, 불안, 분노를 느끼게 되는 두 번째 단계인 위기(crisis) 단계를 맞이한다. 그러다가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워가면서 회복(recovery) 단계에 접어들고 마침내 새로운 문화환경을 즐기고 기능적인 유능성을 획득해 가는 적응(adjustment)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유학생을 포함한 이주민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화접촉과 적응에 대한 주제는 서구에서 지난 20년간 이주민, 체류자, 망명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적응(adaptation)이란 환경적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이나 집단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특히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이동같이 문화환경상의 변화를 말할 때는 문화적응(acculturation)으로 말할 수 있으며 문화적 이동을 경험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심리적 문화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Redfield와 동료들에 의하면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집단들이 계속적으로 직접 접촉을 한 결과 한 쪽이나 양쪽 집단의 원래 문화패턴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Berry, 1997 재인용). Berry(1997)는 문화적응을 하나의 문화적 상황에서 성장한 개인들이 이주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생기는 문화적 변화로 보며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이란 개인이 문화적응을 경험한 결과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와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Berry(2006)는 이중문화에 대한 적응을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징을 유지하는 정도와 타문화집단에 참여하는 정도 여하에 따라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는데 먼저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도 유지하면서 타문화도 수용하는 통합(integration),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은 유지하지 않으면서 타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동화(assimilation),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만을 중시하며 타문화와의 접촉을 피하는 격리(separation),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대한 관심이나 타문화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없는 주변화(marginalisation)의 네 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통합전략이 가장 성공적인 전략인 반

면 주변화를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전략으로 보았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생각할 때 흔히 양국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집단주의의 경향이 강하고 의리를 중시하며 체면의식이 강하고 예의범절을 따지는 면에서 유사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인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楊中芳에 의하면(김삼화, 2005) 중국인들의 자아표현에는 이중성이 있어서 표면적인 표현이 실제적인 생각이나 감정과 다를 수 있으며, 간접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선호하여 자기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또한 중국인의 관계방식은 상호의존적이며 집단적이고 상호신뢰가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데 특히 중국인은 인간관계를 시작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기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자기와 호혜적인 교환을 원하는지,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는 위험부담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인의 전반적인 가치관을 조사한 센코쿠, 다모쓰와 덩치엔은(김삼화, 2005) 중국인의 가치관으로 양다리 걸치기의 처세술, 가정이란 이름의 안전한 안식처로 돌아가기, 전형적인 혼돈 현상, 불신으로 일관된 인간관계, 강한 배금주의, 복잡한 가치관의 잣대, 집단주의에서는 일본과 다르며 개인주의 측면에서는 미국인에 가까우면서도 다른 아시아권의 나라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일곱 가지 특징으로 언급하였다.

한편, 중국유학생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유학생의 적응과정에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인 특히 한족 유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 적응상의 문제로는 사회로부터의 격리, 고독감, 친구 없음, 음식습관차이, 한국에 대한 실망, 성적 억압, 기후, 한국어 능력문제 등으로 밝혀졌다(허춘영, 1998).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이유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해온 중국 유학생들이 위계질서, 상하관계, 남존여비, 예의존중 등이 아직도 중요시되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든 점과 한국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생활태도의 차이로 한국인과의 교제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타국에 와서 행동을 조심하며 타인과 친밀히 사귀지 못하는 중국인 특유의 행동양식 때문이라고 한다(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9). 그리고 중국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관계는 선후배의 관계와 교수와의 관계로 나타났다(김삼화, 2005).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장혁심, 2005)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과 기타(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이었으며 물질적 지지나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가 높아도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적 지지는 장학금혜택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수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여기고 있으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평가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라고 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심층 면담한 연구에 의하면(김대현 외, 2007)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은 '가깝게 느껴짐' '초기 낯설', '익숙해짐' '새로운 낯설'의 네 가지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경험은 유학생들에 대한 기대수준 및 성취동기, 언어능력, 당면문제의 성격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유학생의 적응양상을 조사한 허춘영과 김광일(1997)에 의하면 중국유학생들은 '동화하는 학생들' '전통적인 학생들' '실용주의적인 학생들' '갈등이 많고 격리된 학생들' 등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적응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중국 유학생의 학업자존감에 있어서 대학생활적응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이해연, 2006)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 문화적응유형에 대한 연구(김재우, 2005)에 의하면 격리유형이 차별을 가장 심하게 느끼며 한국인에게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한국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이었으며 문화적응유형은 통합, 동화, 격리, 주변화의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특히 한족 중국인이 조선족보다 한국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생활만족도도 더 높은 반면, 조선족은 한족보다 더 심하게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조선족의 경우 역문화적응의 문제와 한국인의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연구(장혁심, 2005)에서도 중국인 조선족 유학생보다 중국인 한족 유학생인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적응에 관해서는 Berry의 네 가지 문화적응유형이나 개별 면접자료에 의해 적응양상의 범주를 구분하는 것으로 적응상태를 파악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일차적인 생활세계는 대학생활로 대학생활을 통해 한국문화와 동시에 하위문화로서 한국의 대학문화를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대학생활문화에 초점을 두어야하며 그 속에서 적응해가는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문화란 한국 문화의 기저위에 전반

적인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대학생활 특유의 문화를 말하며 스트레스란 중국인 유학생들이 그러한 대학생활문화를 경험하면서 겪는 긴장과 불안상태로 보고자한다. 그리고 적응이란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유학중인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삼분의 이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과 앞으로도 문화적인적 교류가 빈번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와는 외형상 유사해 보이지만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문화집단이자 국내 대학의 중요한 교육대상이며 교육소비자인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문화적, 교육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화속에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중국은 한국의 교역상대국 1위 국가이며 국내 유학생 출신국이나 결혼이민자여성의 출신국가에서도 1위 국가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가장 활발하며 앞으로도 더욱 교류가 왕성해 질 전망이다. 그러나 교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중 상호간의 문화이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차세대 사회주역이 되는 청년층의 교육적 교류를 통한 문화이해와 소통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중국유학생은 국내 대학의 중요한 교육소비주체로서 국내 대학이 중국인 유학생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는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한국학생들의 입장에서 중국인유학생들과의 활발한 교육적 학술적 활동의 교류를 통해 중국인과 중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갖추며 외국인의 관점에서 문제점으로 보이는 한국의 대학문화를 제고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대학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유학경험을 통해 중국으로 귀국하여 지한적(知韓的)이고 친한국적(親韓國的)인 인재로 활동함으로써 한중교류와 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중교류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문화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적응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부분적이거나 중국인의 의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응을 수월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유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치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관점을 참고로 하여 국제화시대에 맞는 대학내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인 유학생들의 스트레스 내용과 적응요인을 파악하여 유학생들의 적응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적응을 잘하는 유능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여성이 있는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돕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문화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인가?

둘째,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문화 적응요인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특정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16명을 선정하였다. 지방의 대학교를 선정한 것은 전반적인 입학 학생수 감소와 국내 지방 학생들의 학교이동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지방 대학교들의 경우 특히 손실을 보충하는 학교 재원마련을 위한 주요 목적과 부차적으로 교육의 국제화라는 명분에서 중국

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며 실제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의 중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지방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3명으로 구성된 예비면접을 실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한국의 대학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내용을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유학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응하였는가에 대한 개방형 질문이었다.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현재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네 집단의 유학생(총 16명)을 Focus Group 면접을 하였다. 네 집단의 중국인 유학생의 Focus Group 면접은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조선족과 한족 중국인 유학생 두 명의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은 개인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녹음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면접하는 동안 두 명의 기록자가 답변내용을 기록하였다. 면접대상이 된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니는 대학교에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총 193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 이 가운데 중국 유학생이 90%가 넘는 184명이었다. 이 학교로 유학 오는 유형은 교환학생과 일반유학생, 복수 학위제에 따른 유학생으로 이 중 일반유학생이 대부분이며, 대학원생 유학생의 경우 134명의 중국 유학생 가운데 44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면접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중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	성별	학년	전공	한국생활기간
1	여	3	무역학과	2년 6개월
2	여	3	무역학과	2년
3	여	3	무역학과	2년 6개월
4	여	3	무역학과	4개월
5	여	2	해양학과	1년 6개월
6	여	1	경영회계학과	6개월
7	여	1	산업디자인	1년(조선족 동포)
8	여	대학원생	컴퓨터학과	1년
9	여	대학원생	기계공학과	1년 6개월
10	남	1	산업디자인과	6개월
11	남	2	기계공학과	2년
12	남	3	토목공학과	2년 6개월
13	남	1	무역학과	1년 2개월
14	남	2	해양학과	2년
15	남	대학원생	기계공학과	2년
16	남	3	토목공학과	3년 6개월

3. 자료분석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내용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에 대해 면접한 내용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록내용을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개방코딩 과정(Creswell, 1998)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정보를 구분함으로써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의 초기 범주들을 형성하여 각각의 범주내에서 몇 가지의 속성 또는 하위범주들을 찾아내며 차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코딩을 통해 관련된 내용들을 범주로 구분하여 명명한 뒤, 다시 축코딩을 통해 현상에 대한 중심범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유학생의 스트레스의 경우 6개의 상위범주와 각각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중국인유학생의 적응노력은 12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이 구분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의 분석범주는 <표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 면접대상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의 분석범주

	상위범주	하위범주
스트레스	문화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문화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li> <li>남녀불평등문화</li> <li>서열문화</li> <li>대인관계</li> <li>음식</li> <li>종교</li> <li>예상과 다른 실제의 한국 남성과 여성</li> <li>생활방식</li> <li>차별</li> <li>역사적 문제</li> </ul>
	교육적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성적</li> <li>진로 및 진학</li> <li>기숙사</li> <li>학교정보</li> <li>교육적 지원</li> <li>영어수업</li> <li>교수</li> </ul>
	심리적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로움</li> <li>피로감</li> </ul>
	경제적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학금</li> <li>아르바이트</li> <li>생활비</li> <li>연구비</li> </ul>
	언어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언어소통</li> <li>조선족의 한국어말</li> <li>영어</li> </ul>
적응	대학생활 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학생분리</li> <li>동아리활동</li> <li>신변안전</li> <li>일상생활</li> <li>선후배관계</li> <li>음주문화</li> <li>유학생생활지원</li> <li>문화체험</li> </ul>
		한국어실력
		영어중심의 수업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적 친화성
		자기성장
		적극적 성격
		한국문화에 동화
		중국인 친구, 선배들의 도움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한국인 친구, 선배나 교수의 도움
		개인적 노력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
	건강유지활동	

III. 연구결과

1.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

1) 문화차이

면접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생활문화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는 중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비롯하여 남녀불평등, 서열문화 같은 한중간의 문화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언급하였다.

(1) 중국문화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내에서나 교외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문화에 대해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을 가지고 중국문화를 폄하하는 것과 한국인 교수조차 중국에 대해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것에 다소 흥분하는 감정을 드러냈다.

한국사람들은 중국사람들은 잘 안 씻고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건을 사용하다가도 made in china라고만 써있으면 바로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 안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것은 좀 싸지만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사례5)

여기 학생들은 다 중국에 대해 못산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과 노트북을 사용하니까 진짜 부자라고 하는데 진짜 황당해요. (사례9)

어떤 교수님이 중국에 가지지 전에 물어보세요. 안전하게 다녀와야 한다고. 이상해요. 직접 중국에 가서 진짜 중국을 보면 문화, 사람, 환경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학교에 서라도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

겠어요. (사례8)

학교에서라도 중국문화와 발전상을 한국친구들에게 알려서 중국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진짜 중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례7)

## (2) 남녀불평등문화

남녀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하였으며 전통적으로 남자가 요리와 같은 집안일을 잘 하는 것을 익숙하게 보아온 중국유학생들은 한국인 남학생들이 여학생과 함께 공평하게 일을 하지 않는 남녀불평등한 모습에 낯설어 하며 문화적 차이를 크게 느낀다. 특히 중국인 여학생들의 경우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성불평등 문화를 접하면서 놀라움과 불만을 나타내었다.

일을 찾을 때도 중국에서는 남자, 여자 일을 공평하게 찾을 수 있어요. 중국에서는 남자만 월급을 더 많이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남자들은 월급 많이 받아오면 집안일은 안하는데 중국에서는 월급 많이 받아와도 집안일은 같이 해요. (사례9)

한국은 남자들이 살기에 좋은 남자 중심 문화예요. 음식점을 같이 갔는데 여학생들이 고기도 자르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런 거 다 남자가 해요. 친구 집에 갔을 때도 친구 아버지는 그냥 앉아있고 시키기만 해요 친구 엄마 혼자서 땀 흘려가며 식사준비하고 치우고 이해가 안가요. 왜 안 도와주는지. (사례 5)

## (3) 서열문화

남녀불평등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문화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었다. 사실 중국은 공산화되기 이전부터 중국 사람들은 즐겨 사용하는 평요(朋友)라는 말에서 보듯이 나이나 세대를 따지지 않는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남녀, 연령, 학번, 지위를 따져서 존대하고 거기에 맞는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일이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며 한국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걱정을 갖게 한다.

언어차이도 문화차이인데 존댓말을 안 한다고 예의없다고 해요. 중국은 남녀평등이고 사회주의라 자본주의와는 차이가 있는데 교수님이 문화적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교수님이라도 친구, 동료처럼 지내는데 여기서 존경의 대상으로 대해야 하고 중국에서는 대답을 할 때도 눈을 마주치고 하는데 여기서는 교수님들께서 오해를 하세요. (사례2)

중국에서는 다섯 살 많아도 친구인데 여기서는 한 살만 많아도 존대해줘야 해요. 물건줄 때도 공손히 줘야 하고 나이를 따져가며 사람들을 존대하고 존칭을 써야 하는 게

힘들어요. (사례11)

## (4) 대인관계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인 친구나 한국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맺는 일을 어려워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대인관계 형성(허춘영 외, 1999)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가 정말 어려워요. 한국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은 그냥은 힘들고 같이 먹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같이 놀아야 해요. 한국인 룸메이트친구하고도 잘 지내는 것이 어려워요. (사례13)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와 나 혼자 있을 때 한국인 친구의 태도가 달라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인 친구나 교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요. (사례16)

## (5) 음식

인간의 생활문화가운데 가장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식생활문화로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이 타문화에 갔을 때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배려한 식단이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않아 유학생들은 중국 음식을 자유롭게 해먹기 위해서 자취생활까지 할 정도로 음식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크다고 하겠다.

유학생들을 위한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음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요. (사례6)

한국음식은 기름기가 적어서 먹은 후에 배가 빨리 고파요. (사례10)

기숙사에서 유학생을 위한 음식을 제공했으면 해요. 지금 친구들이 모두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례 12)

## (6) 종교생활

무종교생활이 일반화된 공산주의 국가에서 성장한 중국유학생들은 교내에서나 자취생활을 하는데 열성적인 선교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선교를 접하게 될 때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거부감을 나타낸다.

자취하는데 기독교 믿는 사람이 많아서 낮에도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여자 혼자 있는데 들어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꼭 믿어야 한다고해요.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난하다고 하고 너무 심해요. 중국에도 이런 종교가 다 있는데 한국은 기독교 강요가 너무 심해요. 교회 나오면 많이 도와준다고도 하고 종교를 너무 강요하고 자주 찾아오니까 생활하는데도 스트레스 받아요. (사례3)

## (7) 생활방식

유학생의 경우 기숙사생활이나 자취생활을 통해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기회가 생기면서 가장 일상적인 생활방식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된다. 특히 늦은 취침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부족, 여학생의 경우 지나친 외모에 신경쓰는 모습에서 다소 이질감을 느낀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사람들 보다 너무 늦게 자요. 예전에 한국 친구와 함께 살았는데 나는 11시 넘으면 자는데 그 친구는 1시 넘어서 자고 TV켜고 불도 켜 놓고 힘들었어요. (사례1)

한국 친구들을 만날 때 시간이 넘어도 안 오고 늦게 오고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사례11)

사실 한국문화라도 중국에 있을 때 한국드라마에서 본 것이 다예요. 막상 와서 보니 드라마에서 본 것하고도 다르고 같은 아시아라도 생각이나 생활방식이 많이 달라서 놀랐어요. 경제적으로는 발전했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하는 거는 중국보다 그렇게 발전된 것 같지 않아요. (사례3)

학교에 갈 때 한국 친구들은 화장하느라고 수업시간에 늦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래도 꼭 화장을 해야만 학교에 간다고 하고 여기 여학생들은 화장하는 거 성형하는 거 외모에 너무 치중해요. 학생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례7)

## (8) 예상과 다른 실제의 한국 남성과 여성

중국유학생들은 유학 전 중국에서 인기있던 한국드라마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되게 비친 멋지고 자상한 남성과 순종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예상했으나 막상 대학생활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남녀 대학생들의 모습이 실제로 다른 점에서 실망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좀 더 강하고 남성이 요리와 같은 가사일을 많이 하는 중국에서 중국남학생은 온순하고 여성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여성이 활달하고 음주도 하며 잘 노는 모습에 당황하며 평등주의 사상에 여성의 주장이 강한 문화에 익숙해있던 중국여학생의 경우 권위주의적인 한국인 남학생의 모습에 실망하며 문화적 차이를 실감한다.

TV에서 봤을 때 한국여자는 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깐 실제로는 잘 놀아요. 술도 잘 마시고 그래서 한국인 여자친구는 부담스러워요. 중국여자보다 남자한테 순종한다던가 그런건 아니예요. (사례 12)

예전에는 한국 남자는 다 신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생각 안해요. 선배라고 명령만하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권위적인 면이 많아요. TV에서 보던 한국 남자의 모습하고 실제로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남자하고는 사귀고 싶지 않아요. (사례 2)

## (9) 차별

중국인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생활에서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아르바이트가 불법임을 알고 임금을 적게 주는 상황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서는 성적처리에 있어 한국학생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학점이 낮게 나오는 것과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관리차원에서 여권을 총괄관리하는 문제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알바할 때도 중국인유학생한테는 월급을 주지 않고 늦게 주고 그래요. (사례5)

사실 한국학생과 똑같은 기준으로 유학생들에게 점수를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도 한국학생들처럼 답안지를 잘 쓸 순 없어요. (사례12)

다른 외국인유학생들은 비자를 자유롭게 개인이 갖고 있는데 우리 중국인유학생은 센터에서 가지고 관리해요. 불공평해요. 이걸 차별이잖아요. (사례1)

## (10) 역사적 문제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정치문화적 교류도 많지만 영토문제나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얽힌 사이이다. 그러므로 조사당시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주장하는 중국과의 마찰이 쟁점이 되었을 때 그러한 역사문제는 평상시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한중 학생간의 의견대립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문제로 부상한다. 특히 국적이 중국인 조선족의 경우 동일민족임을 내세워 한국측 입장에 동조하기를 요구하는 한국친구들의 압력에 부담을 느낀다.

조선족이니까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지만 너는 실질적으로 한국사람이니까 한국사람 편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뭐라고 하면 정말 곤란해요. (사례7)

한국인친구가 중국 사람은 왜 그래 왜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하는 거야 하며 이상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는데 민감하게 반응할 때 스트레스 받아요. (사례15)

같이 공부할 때나 생활할 때 역사적인 문제는 사실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뉴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한국 친구들이 꼭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고 어차피 각자 자기나라를 편드는 거잖아요. 그럴 땐 뭐라고 해야 하는지 힘들지요. (사례15)

## 2) 교육적 스트레스

중국인 유학생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만큼

이나 교육환경과 관련된 불만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토로하였는데 크게 수업방식, 진로·진학, 기숙사, 학교정보, 교육적 지원, 영어, 교수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나누어볼 수 있다.

#### (1) 수업방식

중국유학생이 지각하는 수업방식에 대한 불만은 물론 수업을 이해하는 한국어 실력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대학에서의 수업방식상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불만스러운 수업방식,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는 발표자료(PPT) 중심의 수업, 휴강, 빠른 진도, 수업시간의 단축, 너무 포괄적인 질문 등은 이해속도가 더디거나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에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수업방식이 생각과는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실망스럽다. (사례10)

중국에는 휴강이라는 것이 없는데 휴강하는 교수님도 많고 '이 과목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쓰시오'라는 질문이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강사는 3시간 수업을 2시간으로만 하고 너무 읽고만 넘어가면 우리는 잘 몰라요. (사례10)

수업시간의 PPT도 너무 빨라요. 너무 진도가 빨라서 힘들었어요. 그냥 막 넘어가요. (사례2)

한국어 강의를 듣는데 우리는 말하는 연습도 필요한데 강사 혼자서 강의하고 나가니까 지루해요. 진도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항상 듣기만 해야 하고 말하기가 적어요. 모르는 것이 있어도 그것만 알려주고 또 진도를 나가요.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없어요. 말하는 기회가 적어요. (사례6)

어학원 교재도 학생들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선택해서 사용해요. 내용만 막 나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도 많아요. (사례4)

#### (2) 진로, 진학

학부생으로 혹은 대학원생으로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인유학생들의 경우 한국대학 졸업이 사실상 중국으로 귀국해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최근의 현실적 상황 인식으로 인해 유학생생활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될 정도로 큰 스트레스였다.

대학원 졸업하고 진로가 제일 걱정이죠 대학원을 졸업해도 영어와 중국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기도 한국어를 못하니깐 한국회사 들어가는 것은 힘들어요. (사례8)

여기 졸업하고 중국에 가서 일하면 중국에서 학교 다니

는 것보다 월급이 더 적어요. 중국에서 연구하는 것하고 여기서 연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을 다 못 받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외국에 유학갔다 온 사람들도 다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요. (사례1)

여기서 석사졸업하면 바로 중국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박사과정을 해야 하는데 교수님이 너무 일을 시켜요. 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면 기계학과 나온 여자에게는 기회가 적어요. 중국에 가면 기회가 많아요. (사례9)

#### (3) 기숙사

기숙사는 유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생활공간이자 국내 대학생들과 가장 가까워서 접하게 되며 교류하게 되는 중요한 교육환경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재학생 위주의 기숙사규칙이나 식단은 유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기숙사의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아요. (사례8)

11시면 자야 하는데 점호는 12시에 해요. 그것이 힘들어서 기숙사를 나왔어요. (사례3)

방학이 되면 물건을 옮겨야 해요 방학때마다 그래야 하니깐 너무 힘들고 불만스러워요. (사례7)

다른 대학은 외국인 기숙사가 따로 있어요. 여기 대학에서는 한국인이랑 같이 방을 써야 하는데 생활습관이 달라서 중국친구들이나 한국친구도 서로 불만이 많다고 해요. (사례8)

#### (4) 학교정보

중국유학생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홍보하는 한국 대학들의 홍보자료를 받고 유학 오는 학교를 선택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와서 본 한국의 대학의 사정이나 상황, 교육환경이 홍보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실망과 불만을 느끼게 된다. 그 가운데 한국어 시험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이나 교육수준에 대한 불만, 홍보용 사진과는 다른 학교시설에 대한 실망 등이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봐서 4급 이상만 되면 한국에 와서 한국어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깐 1학기 동안은 어학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어야 한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년 동안 4학기를 배워야 해요. 돈도 더 많이 들고. (사례6)

중국에서 한국에 올 때 홍보하는 것과 다 달라요. 중국에서 좋은 것만 멋있게 홍보를 하니깐 기대가치가 높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중국에서 본 사진은 너무 좋은데. (사례8)



(5) 교육적 지원부족

중국인 유학생들은 특히 유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언급하였는데 장학금 지원외에 학습과 관련된 안내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서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수업과정에서 유학생의 요구에 맞는 수업진행을 원하고 있었다.

장학금 지원을 빼고는 유학생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가령 어떻게 유학생들을 잘 해야 하는지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내나 공부방법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알려주는 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같은 유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고 시험준비를 해야 하는지 학점을 잘 받는 방법 같은 걸 도와주는 서비스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1)

(6) 교수

중국인 유학생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수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는 유학생을 고려하지 않는 성적처리, 휴강, 중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연구압력 등이 있었다.

교수님들이 우리가 유학생인데 우리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점수를 너무 낮게 주는 것이 힘들어요. 유학생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출석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도 F를 줘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시험을 못 봤다고 그러면서 안 된대요. 이런 건 이해해 줘야 해요. (사례5)

중국에서는 휴강같은 것은 전혀 안하는데 여기는 휴강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음대로 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사례9)

시험볼 때 '이 과목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쓰시오'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3시간 수업을 2시간만 하고 너무 읽고만 넘어가면 우리는 잘 몰라요. (사례1)

한국 교수님들은 중국인 대학원생에게 기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한국학생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사례9)

3) 심리적 스트레스

(1) 외로움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생들로 인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선행연구(허춘영, 1998)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유학생들에게 있어 향수병이나 고독감, 격리감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중국인 유학생들은 유학생들로 인한 외로움은 다른 스트레스보다 비교적 적게 토로하였지만 그래도 가족이나 모국을 떠나 혼자서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처리해야 하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같은 중국인 친구들이 있어서 덜하긴 해도 힘들땐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례6)

명절 때나 연휴 때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을 느껴요. (사례11)

몸이 아플 때나 힘들 때는 중국에 가고 싶어요. (사례7)

(2) 피로감

중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사실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있지만 수업과 아르바이트의 병행에 따른 바쁜 생활과 한국어 소통으로 인한 긴장감이 더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이 가중된다.

생각보다 학기중에는 생활이 바빠요. 수업듣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한국말 때문에 늘 긴장하니까 많이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늘 쌓이고. (사례5)

마음이 힘들어요. 방학을 해도 일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교수님께서 시간을 안줘요 어떻게 해서 1주일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그 기간으로는 중국에 가지도 못해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가죠. 비행기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고 2일을 가야만 집이 나오는데 왕복으로는 4일이 걸려 집에서는 2일 밖에 있을 수 없어서 갈 수 없어요. (사례8)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르바이트도 많아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요. (사례2)

4) 경제적 스트레스

(1) 장학금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장학금 혜택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토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의 불만과는 달리 실제로 조사대상자인 중국유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측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에 신경을 써서 2008년도 5월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중 학부 142명과 대학원생 36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비록 장학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들은 장학금으로는 등록금을 충당할 수 없으며 어차피 장학금을 받는다해도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중국의 부모나 아르바이트에 의존해야 하므로 주관적으로 장학금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는다.

장학금을 잘 안줘요. 장학금을 타려면 성적도 포함되고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기가 어려워요. 2학기 때는 성적으로 하지만 1학기 때는 자매학교에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우리 장학금을 받기가 더 어

려워요. 장학금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도 차이가 나요. (사례2)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장학금 기준을 정확히 해주고 등록금의 절반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 좋겠어요. (사례7)

장학금타기가 힘들다. 장학금을 타려면 전공 성적하고 다른 것도 포함하고 한국어 시험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례11)

## (2) 아르바이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장학금에 이어 불법인 줄 알면서 해야 하는 아르바이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교내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일에만 한정되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고깃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다른 곳에서 전공 관련 일을 하고 싶지만 은행계좌에 거래내용이 찍히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기간 연기를 할 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은행계좌가 찍히면 출입국 사무소에 돈을 주고 해야 하는데 힘이 들어 그냥 두면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돼요. (사례3)

열심히 해도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요. (사례14)

아르바이트를 불법으로 하면 중국으로 돌려보낸대요. 안 걸리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례4)

학교에서 불법이 아닌 아르바이트 정보와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례13)

## (3) 생활비

한국으로 유학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래도 중국에서 다소 생활형편이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학비외에 일 년에 삼사 백만원하는 생활비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며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물가가 중국보다 비싸다고 인식하며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최소 30만원은 있어야 해요. 일 년에 3-400만원은 쓰게 돼요. (사례2)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늘 부족하고 아주 돈이 없을 땐 유학은 걸 후회해요. (사례10)

## (4) 연구비

최근 정부에서 연구사업지원금을 받은 대학의 경우 비교적 여유있는 연구비로 외국인유학생 대학원생에게 일정

액의 보수를 지급하며 연구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능한 중국인 대학원생 유학생유치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학원생인 유학생이 받는 보수는 많지 않으며 그나마 때로는 보수가 연체지급되는 상황이 있어서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표출된다.

교수님과 고용관계에 있으면 월급을 많이 줘야 해요. 한 달에 25만원으로는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잘 할 수 있게 보장해 줘야 해요. (사례9)

중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는 때 식비, 기숙사비 다 공짜에다 월급까지 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켜요. 식비도 안주고 월급도 조금밖에 주질 않아 부족해요.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례8)

월급도 고정적이지 않아 늦게 줄 때도 많아요. 아는 오빠는 논문 다 쓰면 준다고 했는데 논문 다 끝났는데도 월급도 못 받고 그냥 중국갔어요. 교수님따라 너무 달라요. (사례1)

받는 것에 비해 연구임무가 너무 많아요. 한국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사례15)

## 5) 언어스트레스

출신국가와 유학하는 국가의 언어가 다른 유학생들의 스트레스에서 언어차이, 언어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학생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 의사소통, 수강신청이나, 수업, 한국인 친구나 교수와의 소통문제 뿐만 아니라 조선족인 경우 어투나 사용어휘가 달라 편견의 대상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 (1) 한국어 언어소통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학생생활 내내 큰 스트레스이다. 유학생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소 줄어들며 한국어 능력도 다소 호전되지만 여전히 “매우 어려움의 단계”에 머문다고 한다(허춘영 외, 1999).

수강신청하는데 한국말을 못해서 힘들었어요. (사례6)

한국말을 쓰기는 하는데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례8)

한국친구랑 한국말로 깊은 이야기를 못할 때 답답하고 (사례5)

역을한 일을 당했는데 한국말이 안 되어서 그냥 참아야 하는 게 힘들었어요. (사례11)

중국에서 한국어로 올 때 한글 2-3급 정도만 한국에 가도 좋다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매학교 학생은 한국어 기준이 없어 처음 오게 되면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커요. (사례14)

### (2) 조선족의 한국어말

중국인 유학생 중에는 한족이 아닌 조선족이 일부 있으며 이들은 국적상 중국이지만 한민족으로 보통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한다. 그러나 조선족 특유의 말씨는 바로 구별이 되어 조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유없이 부정적인 선입견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의 내용과 의미가 달라서 조선족이면서도 사용하는 단어나 단어의 의미가 다른데서 오는 문화차이를 느끼게 된다.

조선족이라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일단 말투에서 표시가 나니까 말투를 듣고 조선족이냐고 하고 조선족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하고 좀 달라서 수업시간에는 잘 들어야 해요. 무슨 의미인지. (사례7)

### (3) 영어수업

중국에서도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그 수준은 한국보다 높다고 유학생들은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면접한 대학원생인 중국인 유학생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으며 학부생인 경우도 한국 대학에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영어수업의 수준이 낮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영어와 관련된 문제는 중국식 발음과 한국식 영어발음의 차이로 인한 강의 수강의 어려움과 영어로 주로 의사소통을 하는 중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한국대학원생과의 영어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말과 영어로 하는 수업시간이 있는데 정말 힘들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영어를 써도 중국식 발음과 한국식 발음이 다르다보니 여기서는 교수님의 영어를 알아듣기가 어렵다. (사례16)

대학원생들 중에 영어를 못하는 한국학생들이 있어서 영어로 수업을 못해서 아쉬워요. 그리고 동료랑 공부에 대해 교류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혼자서 공부하니 힘들어요. (사례8)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한국에 가면 영어로 다 수업을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다 말이 달라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국말도 배워야 하고. (사례9)

여기 영어회화는 너무 쉬운데 꼭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게 불만이에요. (사례3)

## 6) 대학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로는 한국친구들과는 분리되는 현상, 동아리활동, 신변안전, 일상적 생활처리, 선후배문제, 음주문화, 유학생지원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유학생 분리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온 한국의 대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한국어능력과도 관련있지만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과의 관계가 긴밀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도움이나 정보를 중국인 친구나 선배에게서 얻게 되므로 대학내에서 유학생집단으로 격리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친구들과 사귀고 싶어도 한국말이 잘 안되니까 중국 친구들과만 다니게 되요. 그래도 큰 불편이 없어요. (사례4)

중국유학생이 가장 많고 친구들이나 선배한테 도움받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못 느껴요. 사실 한국인 친구들이 없어도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같은 대학 안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OO 대학교 학생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섭 같다는 생각을 해요. 좀 더 한국친구들하고 많이 교류하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례10)

### (2) 동아리활동

대학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활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인간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장이자 다양한 인간관계와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면접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전에 허용했던 유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동아리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여가활동도 같이 하여 처음 유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어학원에서 반대를 해요. 총학회는 일을 할 때 마다 어학원에 물어봐야 하는데 어학원에서는 중국인 동아리가 있으니까 총학생회 관련 일들은 하지 말라고 해요. (사례2)

### (3) 신변안전

중국인 유학생들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신변안전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조명시설이 안되어 있거나 경비순찰이 없는 어두운 교정을 갈 때 신변안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았다.

기숙사는 괜찮은데 자취하니까 불안하고 무서워요. (사례7)

학교 후문쪽으로는 관리원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서 어두워서 위험해요. (사례3)

여자하고 남자하고 함께 다녀야 하고 여자친구들도 다 같이 다녀야 해요. 여자 혼자서 다니면 안돼요. (사례5)

학교가 밤에는 좀 무서운 데가 있어요. (사례5)

아플 때 중국인 보호자나 보험이 없어서 돈이 많이 들어요, 의료보험이 있어야 해요. 얼마 전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돈이 많이 나왔는데 현금이 없어서 실험실 선배들이 도와줬어요. (사례1)

#### (4) 일상생활

유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중국보다 물가가 비싼 것과 휴대폰의 개설이 어려운 점을 스트레스로 언급하였다.

한국에 처음 오면 물건값이 너무 비싸서 놀랐어요. (사례6)

한국에 와서 핸드폰을 사용해야 하는데 외국인 등록증으로는 직접 가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친구들에게 부탁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요 저는 선배 중 친한 선배가 신분증을 빌려줘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사례5)

#### (5) 선후배관계

친구같은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대학생활에서의 선후배관계로 특히 서열과 권위, 연령을 중시하며 예외와 복종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적응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중의 하나로 언급된다.

과 MT를 갔는데 선배들이 전체 기합을 쳤어요. 처음에는 유학생인 것을 모르고 같이 쳤는데 나중에 우리가 유학생인 것을 알고 우리는 빼고 한국인들만 기합을 쳤어요. 재미있다고 보다는 무섭고. 학교에서는 선배들은 후배들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롤리더라도 무조건 복종하라고 선배니깐 말대답하지 말라고 해요. (사례11)

#### (6) 음주문화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는 매년 신학기가 되면 대학신입생들을 위한 환영식에서 어김없이 술이 등장하고 학교 행사모임에서도 음주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술을 하지 않거나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유학생의 경우 그러한 대학의 음주문화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때로는 한국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술을 잘 못하는데 계속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사례2)

중국에서는 2차, 3차 이렇게 하지 않는데 여기는 끝을 보듯이 술을 먹고 그러니까 나한테 꼭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모임 외에는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사례1)

이해가 잘 안가요. 대학생인데 왜 그렇게 자주 술을 많이 먹어야 하는지 왜 권하는지. (사례7)

술을 못하니까 술 잘 먹는 친구들이나 여학생들과 있게 되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사례5)

#### (7) 유학생활지원

면접한 유학생들은 교내 유학생지원센터들의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정작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비자연기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혼자서 알아서 해요.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어학원으로 가라고 하고 어학원에서는 국제교류센터를 가라고 해서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1)

같은 외국인 유학생인데 독일 사람에게는 요구하는 것도 없고 여권도 내지 않아요. (사례8)

지난 번 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도 사실 센터쪽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결국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했는데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국제교류센터에서 유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3)

#### (8) 문화체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하여 재학생인 대학교에서는 한국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문화체험여행을 1년에 두 차례 실비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체험을 한 유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의 좋은 기회임을 알면서도 너무나 촉박한 일정으로 여러 장소를 순회하다보니 문화체험자체의 의미보다 피로감과 후유증을 낳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한국을 더 많이 알라고 한국문화체험을 갈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이 있지만 다른 지원은 없어요. 그런데 문화체험을 갈 때도 하루 안에 많은 곳에 가야하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사실 갔다오면 오히려 병나서 안가고 싶어요. 한국문화를 좀 더 가깝게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체험하는 그런 문화체험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례2)

2.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적응요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문화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실력, 한국인 친구나 교수의 도움, 문화적 친화성, 한국문화에 대한 호의적 태도, 영어중심의 수업, 자기성장 인식, 적극적인 성격, 한국문화에의 융화, 만족스런 교육환경,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개인적 노력 등으로 나타났다.

1) 한국어실력

유학생할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정도로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실력은 유학생할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한국어실력이 늘었을 때 정말 한국으로 유학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례2)

중국에서 미리 배우고 여기 와서 실력을 쌓으니 한국생활이 훨씬 쉬워졌어요. (사례3)

한국어가 되니까 수업도 잘 들을 수 있고 한국친구나 교수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좋아요. (사례15)

2) 영어중심의 수업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대학원생 특히 이공계의 경우 주로 영어로 진행되므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대학원생인 유학생의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는 발표도 영어로 하고 한국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아요. (사례9)

3)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적 친화성

중국인 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유교문화적인 바탕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느끼며 한국문화에 대해 친밀감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문화적 친화성은 유학생할이 중국과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편안함을 준다.

중국과 인사나 예절방식이 비슷하고 젓가락을 사용하고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점과 아무리 바빠도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 같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같아요. 한국은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질서 의식이 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사례12)

한국 사람들은 항상 '화이팅'이라고 해주는 것이 너무 좋고 단결심이 너무 좋아요. (사례5)

알고 보면 한국과 중국은 여러 가지로 가까운 나라잖아요. 앞으로도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서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례15)

4) 자기성장 인식

중국인 유학생들이 여러 가지 유학생할에서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유학생할을 유지하며 적응해 가는 주요한 원동력의 하나는 유학생할로 자립심이나 자신감이 향상되고 자기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가정 한 자녀정책에 따라 부모의 과보호하러 자란 외동자녀들이 많은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유학생할로 인해 얻은 자립심과 자신감, 자기성장을 유학생할의 매우 소중한 성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한 집에 아이가 한명이라서 집안의 보배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 명이 키워 소황제(小皇帝)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 와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힘이 많아졌어요. (사례9)

자신감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례12)

수업중에 PPT발표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 고개도 숙이고 말도 빨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주 자주 많이 하다 보니까 발표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례7)

시야가 넓어지고 자기생활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례10)

인생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사례1)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해하며 아끼는 것 같아요. 예전엔 자신감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례16)

5) 적극적인 성격

유학생들은 특히 적극적인 성격이 유학생할 적응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데 유효유가 될 수 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데 도움이 되었요. (사례1)

교수님들을 보면 무조건 인사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시고 지나치다가 지금은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해요. (사례14)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울리려고 신경을 많이 썼죠. (사례15)

#### 6) 한국문화에 동화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응의 수준도 더 나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응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타문화를 수용하고 거기에 동화되는 정도에 따라 실제적인 적응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2년 정도가 지난 유학생의 경우 한국음식이나 생활방식, 위계를 따지는 한국문화에 많이 동화되면서 유학생들이 편해졌음을 말하였다.

2년이 지나니까 습관이 다 변했어요. 지금은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고 밥 1-2시가 돼서야 잠을 자고 그래요. (사례3)

한국친구들과 친해지려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지금은 잘 마셔요. 그리고 친절한 태도도 많이 배워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사례2)

선배한테 복종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저도 선배가 되어서 괜찮아요. (사례16)

중국에서는 천천히 하는데 여기선 뭐든 빨리빨리하고 지금은 나도 똑같아졌어요. (사례9)

한국음식이 건강에는 좋은 것 같아요. 맛도 담백하고, 중국 음식은 기름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중국음식 할 때도 기름을 되도록 적게 써요. (사례1)

#### 7) 중국인친구나 선배들의 도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사회적 지지 즉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도 어려움이 생기면 같은 중국인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구하면서 적응해간다.

먼저 유학 온 친구나 선배에게 항상 물어보고 해결해요. 사실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아요. (사례10)

어려운 점이 있으면 친구나 선배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받고 저도 물론 도와주죠. (사례14)

#### 8)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중국 유학생들은 56개의 소수민족을 가진 대국으로서

의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비교우월주의는 Tajfel의 사회정체감이론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방식 중의 하나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비교하여 자기집단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려는 사회적 창조의 전략을 중국인 유학생들이 차별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선행연구(김재우, 2005)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중국에는 56개의 소수 민족이 있는데 여러 문화가 있는 나라라서 자부심을 느껴요. 사실 한국은 문화가 하나인 국가잖아요. (사례2)

2008년 북경올림픽과 경제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인정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사례3)

중국은 문화나 역사 그리고 앞으로 경제발전에서도 미국보다 최강국이 될 거예요. (사례8)

한국도 옛날엔 중국문화를 배웠잖아요. 직접 가서 중국의 발전상을 보면 놀랄 거예요. (사례1)

#### 9) 한국인 친구, 선배나 교수의 도움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중국인 친구나 선배뿐만 아니라 주변의 한국인 친구나 교수들도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친구들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접근과 도움은 유학생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 된다.

한국친구들이 친하게 해줘요. 잘 모르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사례6)

특히 한국인 선배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나도 선배가 되면 잘 해주고 싶어요. (사례10)

교수님께 찾아가서 수업을 이해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공대 교수님들은 미국, 영국 유학파들이 많으신데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어려웠는데 버텼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되요. (사례13)

#### 10) 개인적 노력

중국 유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해도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일이나 학업수행에서 개인적 노력 여하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한국친구를 사귀려고 사실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사례1)

힘들어도 학교활동에 거의 다 참석하는 게 좋아요. 선

배들과의 관계도 잘해두면 시험 때 힌트도 받고 도움이 되요. (사례3)

말하는 것은 괜찮아도 전공공부는 따로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주 많아요. 전자사전은 꼭 가지고 다니면서 찾아야 해요. 모르는 건 언제든 찾아야 해요. (사례4)

처음에 와서 잘 모르니까 힘들어도 정말 많이 참아야했어요. (사례12)

어려움이 생길 때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어차피 다른 중국인 친구들도 다 힘들게 겪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사례15)

11)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

면접한 중국인 유학생의 일부는 교육환경이나 시설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그러한 만족감이 유학생생활을 유지하고 적응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업열의가 많은 유학생 가운데는 학교소재가 유흥시설이 적고 한적한 지방대학이라는 점이 오히려 교육환경에 좋다는 인식도 하고 있었다.

공대는 실험실 환경이 좋아서 만족한다. (사례12)  
한국인선배들이 너무 좋고 잘해줘요. 저는 실험실 선배한테서 초등한국어부터 배웠어요. (사례5)

방학때 서울에 있는 대학들 가봤는데 좋더라구요. 그런데 학교앞이나 주위가 너무 노는 곳이나 술집이 많아서 공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공부하고 생활하기엔 지금 다니는 대학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음식도 맛있고 생활비도 적게 들고 도서관도 잘 되어있어서. (사례1)

가을에 학교 난장(축제)하고 문화체험 여행도 가고 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워요. 제일 인상에 남고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사례13)

기숙사가 좋은 편이에요.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는 만족해요. (사례2)

12) 건강유지 활동

유학생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며 유학생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같은 중국인 친구들과 유대감을 갖고 때로는 한국인 친구들과 운동으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보험혜택이 없어 불안한 중국인유학생의 입장에서 건강유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건강해야 유학생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아픈 돈이 들어요. 우리는 보험이 안 되니까. (사례11)

주로 걷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푸는 데는 운동이 좋아요 저녁에 운동하고 나면 속상했던 것도 다 잊혀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사례14).

가끔 한국친구들과 농구나 축구를 하는데 같이 운동하면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 같아 좋아요. (사례 12)

IV. 논의 및 결론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해 16명의 중국인 유학생 Focus group을 면접한 결과 먼저 중국인 유학생들은 문화차이를 비롯하여 교육적·심리적·경제적·언어적인 면과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문화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로는 중국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무시, 한국의 남녀불평등문화, 서열문화, 대인관계, 음식, 종교, 예상과 다른 한국남성과 여성의 실제 모습, 생활방식, 차별, 역사적 문제로 인한 것이 있었다. 교육적 스트레스로는 수업·성적, 진로 및 진학, 기숙사, 학교정보, 교육적 지원부족, 교수와 관련되었다.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유학생생활로 인한 외로움과 피로감이 있으며 경제적 스트레스는 장학금이나 아르바이트, 생활비나 연구비와 관련되어 있었다. 중요한 언어스트레스로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과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와의 차이, 영어수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외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 스트레스로는 대학내에서 유학생집단의 분리, 동아리활동의 규제, 신변안전, 일상생활, 선후배관계, 음주문화, 문화체험활동으로 인한 것들이 있었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실력, 영어 중심의 수업,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적 친화성, 자기성장인식, 적극적 성격, 한국문화에 동화, 중국인 친구, 선배의 도움,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한국인 친구·선배·교수의 도움, 개인적 노력, 교육환경에의 만족, 건강유지활동.

먼저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저평가나 편견 그리고 선배나 교수한테 복종하거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등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한국의 권위적인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적응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 것은 선행연구(허춘영, 1998)에서도 일부 언급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유명기, 1997)

에서도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문화의 속성으로 위계의식과 권위주의, '우리끼리 문화'의 배타주의, 인종차별 등이 지적되었다. 유교의 발상지이지만 사회주의 국가로 남녀평등의 이념과 중국고유의 형제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성장한 중국유학생들은 1979년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80년대 이후 태어난 소위 '바빙허우'(八零後)세대로 덩샤오핑이 개혁과 개방을 표방한 이후 태어나 혁명교육과 사상교육을 받지 않고 시장경제와 인터넷에 익숙하고 중국의 국력신장을 경험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하여 자기주장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유달리 강한 세대이므로 한국처럼 권위적인 문화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특히 서열의식을 강조하는 선후배관계나 음주를 강요하는 유교적 권위주의와 군대문화가 혼합된 우리 대학의 문화는 외부자 관점에서는 병폐적인 대학문화로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특히 지위,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위계질서와 권위를 따지는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로는 한국과 중국이 전통적으로 유교중심의 가족주의를 사회조직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한국과는 또 다른 특수성을 갖는 문화로 가령 전통 중국에서의 家の 구조와 문화원리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정하영, 2004). 먼저 한국은 장남을 중심으로 한 직계가족이 이상형으로 가족내 상하위계가 분명한 데 비해 중국의 형제관계는 평등한 경향으로 형제들은 가산계승권, 부모부양권, 제사권을 균분으로 하였다. 조상제사에서도 한국에서는 하위세대의 특정 조상만을 선택하는 반면 전통중국에서는 상위세대의 특정 조상을 일부 선택하여 사당을 모시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점에서 한국은 단수적 귀속의 원리인 반면 중국은 조상의 가분성과 복수적 귀속을 특징으로(이광규, 1997) 중국은 자기를 중심으로 현실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복수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 귀속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정하영, 2004).

이러한 가족제도상의 특징 외에 중국 문화의 키워드는 '관시(關係)'를 들 수 있는데(정하영, 2004) 이는 한국의 백이나 인맥과 비슷한 개념으로 비공식적이며 호혜적인 친분의 교환을 전제로 한다. 관시의 구성요소에서 제일 중시되는 것이 감정(인정)과 신뢰이며 감정을 형성하는 계기는 유동적이고 포용성을 갖는 연고관계이며 감정과 물질적 교환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관시'의 특징은 자기중심성과 평등성 그리고 확장성(중복성)으로 관시의 이러한 특징은 상호작용을 통해 중국인의 심리와 행위의 기본양식이 된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중국은 과거 유교사회였으나 중국고유의 평등성을 강조한 가족제도와 자기이익을 중심

으로 한 인간관계 그리고 부모자녀관계나 사제관계에서도 친구같은 관계를 강조하는 평등주의사상이 사회주의 국가인 오늘날까지 뿌리깊게 유지된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중국인은 '사해 안의 사람이 모두 형제 四海之內皆兄弟'라는 생각을 갖는 반면 한국인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일단 경계하며 우리 아니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그들로 구분지어 배척하는 경향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차이를 감안하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특히 스트레스를 느끼는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이며 남녀차별적인 우리문화는 점차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교내에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주로 실감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백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심각하여 2007년도 제 71차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한국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 우호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대 한국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조선일보 2007.8.20). 한중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문화적 폐쇄성을 드러내며 중국이나 중국인, 중국문화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차별의식과 행동은 지양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다문화사회의 양상을 띠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국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적 욕구에서의 불만 즉, 수업·성적, 진로 및 진학, 기숙사, 학교정보, 교육적 지원부족, 교수와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결과는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치와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재 대학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발표 자료 중심의 시각적 자료에 의존한 빠른 수업진행방식은 한국어가 서툴고 이해속도가 느린 유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기숙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중요한 다문화적인 생활공간으로 유학생들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중국인유학생의 기호를 배려한 식단구성과 방학동안의 기숙사이용, 유학생의 생활방식을 고려한 기숙사의 규정의 재고 등 기숙사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장학금 지원 외에 학습활동과 관련된 교육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학교내에 유학생을 위한 학교생활안내와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과 관련된 지원 및 상담활동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면접한 중국학생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 현지에서



다소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미화된 학교홍보를 믿고 왔다가 크게 실망하였다는 결과는 중국유학생 유치에서 실제와 다른 과대광고나 부정확한 학교소개와 정보는 오히려 유학생들의 불만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중국유학생들은 교수와 학생간의 권위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학점평가에서는 좀 더 관대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중성을 보였는데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대인관계가 교수와의 관계였으며(김삼화, 2005), 유학생들은 인간관계에서는 구별없이 대해주기를 원하면서도 학업생활에 있어서 특별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선행 연구결과(김대현 외, 2007)와 유사하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특히 강조한 경제적 스트레스로 장학금 지원액의 부족과 다소 불분명한 장학금기준과 합법적인 기준을 맞추기엔 현실적으로 지극히 제한적인 아르바이트 기회, 생활비에 대한 부담, 대학원생의 저임금 연구비지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고하지 않는 불법 아르바이트의 양산으로 이어져 유학생들의 체류와 학교생활 적용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허용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장혁심, 2005)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장학금혜택과 아르바이트 제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았다.

한편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언어적 스트레스는 학업능력, 대학생활, 대인관계 등 유학생 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비단 중국유학생 본인의 문제만은 아니며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이 있는 유학생을 선발하거나 유학온 후 심도있는 한국어교육을 수료하는 조건 등을 강화하는 식으로 한국어능력과 관련된 유학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사실 한국어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까다롭지 않은 입학조건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이 증가하지만(한겨레신문, 2008.8.27)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들은 유학생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선행연구에서도(장연, 2005)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을 포함한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안전문제로 인한 중국유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중요한데 야간의 캠퍼스 안전문제는 유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보험이 없는 대부분의 중국유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건강이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학생뿐 아니라 국내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나 야간의 학교안전과 방법에 대한

사고 예방책 마련에 학교가 적극 신경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문화 가운데 음주문화는 중국인 유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하나이자 우리의 고질적인 대학문화로 개선되어야 한다. 음주를 강권하며 음주를 통해서 원활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기성세대의 사고방식과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대학문화는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지는 소위 국제화되는 대학캠퍼스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유학생의 대학생활 관련 스트레스 가운데 외국인인 유학생의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는 교육소비자로서의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적 요구라는 점에서 유념하여야 하며 앞으로 유학생유치를 위한 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은 나름대로 유학생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적용요인들로는 한국어실력, 영어 중심의 수업,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적 친화성, 자기성장인식, 적극적 성격, 한국문화에의 동화, 중국인 친구, 선배의 도움,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한국인 친구·선배·교수의 도움, 개인적 노력, 교육환경에의 만족, 건강유지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어구사 능력은 중요한 적용요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며 이해하는 능력은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 전반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갖춘 유학생을 유치하는 기준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원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강의는 한국어를 못하는 특히 대학원 유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교육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대학원에서의 영어강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생생활이 자립심이나 자신감향상과 같은 자기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선행연구(김대현 외, 2007)에서도 중국인유학생들이 '자기성장'을 유학의 긍정적인 결과로 보았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한 자녀 정책에 의해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고 성장한 현재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유학생생활로 인한 독립심과 같은 자기성장의 기회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친화성을 느끼고 한국문화에 일부 동화되는 행동양식을 통해 적응해간다는 결과는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어능력이 향상된 유학생들의 경우 Oberg가 말한 새로운 문화를 배워가는 회복단계와 새로운 문화환경을 즐기고 기능적인 유능성을 획득해가는 적응단계에 접어들므로 한국문화에 익숙해지면서 동화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동화의 의미는 유학생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문화도 수용하는 Berry가 말하는 통합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에서 같은 중국인 유학생 친구나 선배의 도움이 컸다는 결과는 타문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관계망에서 같은 국가 출신자들이 중요한 지원체계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Bochner와 동료들(1977)에 의하면 해외유학생의 관계망에서 같은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은 자신의 문화 가치를 재현하고 표현하고 긍정화하는 기능을 하며, 본국출신 친구가 있는 것은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Sykes & Eden, 1987; Berry et al., 1987; Ying & Liese, 1991), 유학생들로 인한 심리적, 학업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과의 교류가 부족한 가운데 지나치게 중국인 유학생끼리 결속하는 것은 한국친구 관계망을 통해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문화를 교류하고 학습할 기회가 부족하게 되어 대학생활에서 유학생집단의 소외 내지 고립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방대학임에도 교육환경에 만족하며 그것이 적응의 요인이 된다는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지방대학에 다소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Ward et al., 1998)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재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덜 경험하고 우울증상도 덜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환경을 변화시킬만한 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제한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체류자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이차적인 대처방식이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에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처방안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방대학은 대도시의 대학들의 명성과 조건과 비교해서 다소 열악할 수도 있지만 유희적인 환경이 적고 조용하며 비교적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비가 저렴하며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지역적 환경을 오히려 교육환경의 장점으로 중국인 유학생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지방대학이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 친구나 선배, 교수의 도움이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Bochner와 동료(1977)들이 유학국가의 친구들은 학업적,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선행연구에서도 현지의 친구들과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는 유학생들의 일반적인 만족도, 학업성취 이외의 학교생활 등과 관련있었다(Klinebreg & Hull, 1979).

이제까지의 중국인 유학생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인유학생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그리고 교육적,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와 기타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한국어실력과 영어중심의 수업, 한국문화에 친화성과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한국인과 중국인 동료의 도움 기타 자기성장과 개인적 노력 등의 요인으로 적응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적응요인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대학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중국인유학생 자신의 노력과 대학당국의 교육환경 개선노력과, 그리고 유학생 관리와 관련된 합리적인 제도적 개선 및 다문화적인 대학문화와 사회 문화적 분위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에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들이 문화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문화에 대한 친화성이 적응요인이 된다는 결과로 볼 때,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한국적인 감정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내 대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중양국의 문화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인유학생이 증가하고 적극적 유치가 필요가 상황에서 대학구성원들이 중국인과 중국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의식에서 탈피하여 중국인 유학생을 중요한 교육적·문화적 파트너로 인정하며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으로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유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주는 유학생 친화적이고 다문화적인 대학의 분위기를 형성해갈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인 유학생의 중요한 스트레스이자 적응요인의 하나가 한국어능력이므로 한국어능력시험 등 유학자격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일정한 학업수행 능력을 갖춘 유학생을 유치하며 유학생을 위한 어학교육에서는 유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한국어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문화나 학교에 대해 과장되거나 미화된 정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생활과 한국문화, 일상적인 유학생 생활 전반에 대해 사전에 체계적이고도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와 홍보활동이 인터넷사이트나 안내책자 등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학생의 경제적, 교육적, 대인관계적, 대학생활 관련 스트레스는 학업저하나 중도탈락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중국인 유학

생의 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복지를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한 공간과 담당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신변보호나 학교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측의 세심한 관심과 유학생들의 보험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

넷째, 중국인 유학생은 교육환경이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지만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이 바로 적응의 한 요인이기도 함을 고려할 때, 이들의 교육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내국인 중심의 수업진행방식의 개선을 포함한 교육환경과 질의 제고,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의 완비, 유학생의 생활방식을 고려한 기존의 기숙사시설과 관리,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제도의 개선과 확대,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의 확대와 알선 등을 통해 유학생들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에 유학생들과 관련하여서는 입국절차의 간소화, 졸업 후 구직 체류 연장을 허가하는 등 유학생의 출입국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에 대한 친화성과 한국어능력 그리고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적응요인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학생들의 이러한 적응요인들을 강화시키며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의 중국국적의 외국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중국인 유학생들을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있는 다문화가족을 돕는 자원 봉사 프로그램에 연계시켜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문화적 지원에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중국인유학생, 스트레스, 적응, 한국의 대학생활문화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국내외국인유학생통계.
- 김대현, 강이화, 김아영(2007) 중국 유학생의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75-92.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7.11.30. 부산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상연구회, 문화교육학회,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BK21 사업단 주최 학술대회.
- 김삼화(2005) 다문화적 맥락에서의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한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우(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영(2005)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활성화방안.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혜경(2003) 국내외국유학생의 한국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 2008.7.22. 중국에서 공부하는 북한유학생 877명.
- 외교통상부(2008) 통상홍보기획과. 주요경제통상통계.
- 유명기(2000) 외국인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문제논집, 13, 69-98.
- 유민(2005) 한국거주 중국유학생들의 '한류'에 대한 인식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해연(2007) 중국유학생들의 학업자존감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연(2005)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숙달수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 분석.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혁심(2005)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혜영(1998)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적 특성. 한국문화와 한국인. 국제한국학회. 235-260.
- 전우홍(2006)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Study Korea Project. 한국국제교육자협회 발표자료.
-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하영(2004) 중국의 조직문화-단위가족주의-. 한국동북아논총 제31집. 95-118.
- 조선일보. 2007.8.20. 유엔, 인종차별 없애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국내 외국인유학생통계.
- 최상진, 한규석(1998) 교류 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한국문화와 한국인. 국제한국학회. 161-196.
- 최진희(2005) 주한 외국인의 한국 이미지에 대한 연구- 국내 거주 중국 및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겨레신문. 2008.8.27. 중국유학생들, 한국인이 중국배척하고 무시
- 허춘영, 김광일(1997)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양상에 대한 연구. 정신건강연구, Vol. 16. 166-178.
- 허춘영(1998)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상태: 한족, 조선족 유학생간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춘영, 김광일, 이장한(1999)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Vol. 18, 107-133.
- 황해연(2007)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nks, JA, Banks, CA (Eds.) (2007) *Multicultural education*

- issues and perspectives*. John Wiley & Sons.
- Berry, JW (2006) Contexts of acculturation. In Sam, DL, Berry, JW. (ed.),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pp. 27-5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ry, J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s. In Brislim, R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232-253. Newbury Park, CA: Sage.
- Berry, J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ochner, S, McLeod, BM, Lin, A. (1977). Friendship patterns of overseas students: A functional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2, 277-297.
- Creswell, J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Publications, Inc. 조홍식 · 정선옥 · 김진숙 · 권지성(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Klinebreg, O, Hull, WF (1979) *At a foreign university: An international study of adaptation and coping*. New York: praeger.
- Philps, T, Norsworthy, B (1997) *The World at Your Door*. Minneapolis: Bethany House Publishers.
- Sykes, I, Eden, D (1987) Transitio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train.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6, 293-298.
- Tejfel, H (1982)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d, C, Bochner, S,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East Sussex: Routledge.
- Ying, YM, Liese, LH (1991) Emotional well-being of Taiwan students in the U.S.: An examination of pre-to post arrival differenti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 345-366.

(2008. 9. 15 접수; 2008. 12. 30 채택)